

## 인문계(3교시) 문제 해설

### [문제 1]

#### 1. 출제의도 및 해설

[문제 1]은 요약형 문항으로,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두 가지 방식(단순 다수제와 비례 대표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5개의 지문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1, 4, 5>는 단순 다수제 방식을 주장하는 입장이며, <제시문 2, 3>은 비례 대표제 방식을 주장하는 입장에 속한다.

답안은 먼저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두 입장의 핵심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채점기준

- ① 제시문을 제대로 분류하였는가?
- ② 분류된 제시문에서 각 입장의 논지를 적절히 도출하였는가?
- ③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었는가?

#### 3. 모범답안

- 1) 단순 다수제는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유권자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준다.

<제시문 1> 단순 다수제는 한 정당이 다수 의석 점유할 수 있으므로 선출직 대표자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제시문 4> 다수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의 의지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유권자의 선택이 만나면 그 결과 다수 유권자의 뜻이 공공선으로 실현된다.

<제시문 5>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난립함으로 일관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진다.

2) 비례 대표제는 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합의에 이르기 위해 협상에 참여하고 타협을 도모하도록 유도한다.

<제시문 2>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소수의 동의도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므로 협상과 타협, 관용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제시문 3>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정책결정에 잘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이 높은 제도이다.

## [문제 2]

### 1. 출제의도 및 해설

[문제 2]는 평가형 문항으로, 학생은 양당제 하에서 단순 다수결 투표 방식이 실제로는 다수의 의견에 접근하지 못함을 주장하는 <보기>의 이론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 이론에 근거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인 단순 다수결 방식의 문제점을, 제시문을 충실하게 활용하여 비판해야 한다.

### 2. 채점기준

- ① <보기>의 내용(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선거결과를 결정함)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석하였는가?
- ② 해석결과가 갖는 단순 다수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였는가?
- ③ <제시문>에 제시된 단순 다수결과 비례 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단순 다수결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비판하였는가?

### 3. 모범답안

#### 1) 자료 해석 내용

이 이론에 따르면, 양당제 하에서 단순 다수결 방식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유권자의 선호가 <그림>처럼 분포하는 가상적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의 평균값(90억 달러) 또는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150억 달러)을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대안(100억 달러)을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

#### 2) 단순 다수결 제도 문제점 비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단순 다수결 제도를 비판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이 시민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제시문 1),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다수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으며(제시문 4),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제시문 5) 점이 제시문이 주장하는 단순 다수제 또는 양당제의 장점이다. 그러나 <보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시문이 설명하는 장점이 나타나지 못하고, 전체 유권자의 선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정책으로 집행되어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 다수결 방식은 대표를 선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

### 3) 추가 논의(가산점 부여 가능)

<보기>처럼 유권자의 선호가 다원화된 경우, 단순 다수제는 비례 대표제와는 달리 합리적인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거나(제시문 2), 다양한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지(제시문 3) 못한다.

## [문제 3]

### 1. 출제의도 및 해설

[문제 3]은 설명형 문항으로, 집단의사결정에 요구되는 동의비율과 총비용의 관계를 보여주는 두 사례를, 제시된 표와 그래프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비교 설명한 다음, 각 사례가 <제시문 2>와 맺는 논리적 관계를 이용하여 사례 별로 <제시문 2>를 지지 또는 반박하는 문제이다.

### 2. 채점기준

- ① 집단의사결정 동의비율의 변화에 따라 <사례 1>과 <사례 2>로부터 공통적인 현상과 상이한 내용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는가?
- ② 비용 A와 비용 B의 상충적인 (trade-off) 구조를 이용하여 총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의비율이 각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설명하였는가?
- ③ 각 사례별로 <제시문 2>의 견해를 총비용뿐만 아니라 비용 A와 비용 B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는가?
- ④ <보기>에서 제시된 가정에 벗어난 현상이나 논리를 이용하는 경우 오답.

### 3. 모범답안

### 1) 사례에 나타난 현상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집단의사결정에 요구되는 동의비율이 커짐에 따라 비용 A는 감소하고 비용 B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비용의 합으로 정의되는 총비용은 집단의사결정 동의비율이 커짐에 따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방식인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동의비율은 <사례 1>은 높게 나타난 반면 <사례 2>는 낮게 나타나 있다.

### 2) 각 사례를 이용한 [문제 1]의 <제시문 2>의 견해를 지지 또는 반박

<제시문 2>는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 합리적인 협상과 타협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 1>의 경우 최소 총비용을 초래하는 동의비율이 단순 과반수를 초과하여 나타나 있으므로 <제시문 2>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사례 2>와 같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요구되는 비용이 매우 크거나 선호가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례의 경우 추가적인 합의 또는 타협의 노력은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여 <제시문 2>의 견해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 [문제 4]

### 1. 출제의도 및 해설

대안 제시형 문항으로, <보기>의 법률이 다수에 의해 소수가 무시되는 상황을 막기에 적절한 대안인지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견해를 밝히고, 제시문에 있는 단순 다수제 입장과 비례 대표제 입장 중 하나를 활용하여 정당화하는 문제이다.

### 2. 채점기준

- ①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 ② 제시문 활용 시 단순 반복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심화 응용 수준까지 나아갔는가?

### 3. 모범답안

#### 1) 찬성 입장을 택할 경우 (비례 대표제의 입장을 활용)

- 소수의 합리적 견제가 가능하게 되어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소수의 의견 반영 정도가 더 높아지므로 대표성이 증진됨

- 정당들이 물리적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게 되어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짐
- 폭력적 물리적 대립으로 인한 파행을 막아서 실제적인 입법 효율성 제고
- 신속 처리만이 효율성이 아님.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 마련될수록 법안 시행 과정에서 불만이나 저항이 줄어들어 실제로 효율성이 제고됨

## 2) 반대 입장을 택할 경우 (단순 다수제의 입장을 활용)

- 소수당이 발목잡기를 하면 다수당이 2/3가 안될 경우 제도적 대응방안이 없어서 다수 여당의 책임성이 약화됨. 소수당은 강자인 다수당이 양보하지 않음을 문제 삼아 책임 면제.
- 과반을 초과하는 동의를 소수가 부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를 저지하거나 다수가 소수에 끌려다니는 ‘소수 독재’를 정당화하여 정국 안정에 불리
-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도 합법적 지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물의회로 전략하게 되어 입법 효율성이 하락함. 합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킨 비효율적 법률
-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 결정 원리, 과반수 의결이라는 원칙에 위배